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황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김 라 경**

광주교육대학교

이 미 선

국립특수교육원

김 영 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명 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강 종 구***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취업 현황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2012년과 2013년의 장애대학생 취업 현황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장애인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취업률은 2012년 41.4%에서 2013년 41.80%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장애대학생들은 비장애대학생들보다 10% 이상 취업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제별 취업률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보다 취업률이 높았으며, 계열별 취업률에 있어서는 의학계열만이 2012년과 2013년 모두 취업률이 50% 이상이었다. 또한 지역별 취업률에 있어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서 2012년과 2013년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보다 취업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취업률에 있어서는 2012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률이 높았지만 2013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취업률에 있어서는 경도장애를 가진 경우가 중도장애를 가진 경우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장애 유형별 취업률에 있어서는 시각

* 이 연구는 “안상권 등(2013).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분석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가운데 양적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rakim@gnue.ac.kr)

*** 교신저자(jgkang@daegu.ac.kr)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대학생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진로관련 수업, 이력서 작성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가장 빈번히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비장애학생을 포함하여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취업장애학생만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취업설명을 한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비장애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취업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장애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취업지원과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취업률,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이후에 성공적인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들 가운데 한 가지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취업률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좋은 직업 결과를 보이며(박주영, 2003), 사무직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열, 2007). 이는 교육을 받을수록 전문 직종이나 차별이 적은 직종과 같이 여건이 좋은 환경에 근무할 수 있으므로 직업유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험은 개인의 임금이나, 연금, 보험 등의 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며(Baum & Ma, 2007),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였다(Baum & Payea, 2005).

성인기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고등교육은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8,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교육부, 2013),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 2011년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교육과학기술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교육부, 2013a)과 같이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대학생들의 중요한 관심들 가운데 한 가지인 진로에 관한 관심은 미흡하다. 특히 장애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 충분한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주영 외, 2009). 대졸자 수의 증가와 대졸자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에 속하는 대졸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신혜숙 외, 2012),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박은혜 외, 2011).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간에 차이가 있다. 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이후에 발생하는 취업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들과 함께(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3), 고등교육기관들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임후남 외, 2008). 국가 정책 기관의 취업난에 대한 인식과 졸업생들의 취업 실태에 대한 조사는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파악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는 비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장애인들이 어떠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취업 실태 등에 대한 파악은 부족한 상황이다(이종남 외, 2011). 예를 들어, 김호연(2013)은 시각장애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과 취업 준비 등을 연구하였지만, 이 연구는 특정 장애에 맞춰져 있고 대상자도 30여명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노동부(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2)를 통하여 장애인의 취업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력을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제시하여 교육과 취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연구는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듯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 또한 장애 유형들이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장애 유형들을 가진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관련 정책과 지원 방향에 대한 모색은 시급히 다루어져야 될 과제이다.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정책 및 지원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실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실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실태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취업 실태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장애인들의 취업 실태는 어떠한가? (전체현황, 학제별, 계열별, 지역별,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둘째,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2년,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실시된 현황조사 자료이다. 1차 현황조사는 2012년 취업(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과 2012년 2월에 실시되었으며, 2차 현황조사는 2013년 취업(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8월에 실시되었다. 대학 특성이 다른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그리고 졸업한 장애인이 없는 신설대학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인 408개 대학들 가운데 2012년 1차 조사에서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대학은 259개 대학이며, 2013년 2차 조사에서 장애인 졸업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대학은 18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섯 단계를 거쳐 장애대학생취업(지원) 현황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첫째, 문헌분석 및 연구자협의회를 통해 1차 현황조사표(안)를 개발하였다. 둘째, 3차에 걸친 연구자들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셋째, 조사협조기관인 교육부 및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조사내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외부전문가들인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및 취업(지원) 업무의 관리·연구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과 교수 1명과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및 취업(지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1명으로부터 타당성, 적합성, 응답 용이성 등의 검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조사표(안)를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조사표를 확정하였다.

1, 2차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의 주요 조사내용들은 <표 1>과 같다.

<표 1> 1차 및 2차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표의 주요 조사내용

영역	주요 조사 내용	
	1차 조사표	2차 조사표
학교 현황	대학명	대학명
	설립구분	설립구분
	학제구분	학제구분
	지역	지역
		취업지원부서의 장애대학생 담당직원 유무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직원 전공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담당기간
장애대학생 취업현황 (총괄)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수 (중도장애/경도장애, 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수 (중도장애/경도장애, 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수(중도장애/경도장애, 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수(중도장애/경도장애, 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수(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수(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취업불가능자 수(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취업불가능자 수(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건강보험가입 제외인정자 수(남/여)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건강보험가입 제외인정자 수(남/여)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장애대학생 취업현황 (졸업생 개인별 현황)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의 기본정보 (소속계열/학과명/성명/성별/장애유형*/장애등급/취약계층 여부/학제 구분/입학전형 구분/졸업 후 상황) * '12년 6월 1일 기준 작성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의 기본정보 (소속계열/학과명/성명/성별/장애유형/장애등급/취약계층 여부/학제 구분/입학전형 구분/졸업 후 상황) * '13년 6월 1일 기준 작성
	11년 8월 및 '12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 (직종분류/일자리유형/주된 취업경로/장애인 구분 모집여부/전공일치성/월 평균임금/재학 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12년 6월 1일 기준 작성	12년 8월 및 '13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 (직종분류/일자리유형/주된 취업경로/장애인 구분 모집여부/전공일치성/월 평균임금/재학 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13년 6월 1일 기준 작성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2012학년도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실시현황 (장애대학생 단독실시 여부, 실시횟수/장애+비장애대학생 합동 실시 여부, 실시횟수)	2013학년도 1학기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실시현황 (장애대학생 단독실시 여부, 실시횟수/장애+비장애대학생 합동 실시 여부, 실시횟수) * '13년 8월 31일 기준 작성

3. 자료 분석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는 2011년 8월, 2012년 2월과 8월, 2013년 2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 상의 대학 40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2년 1차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조사는 259개 대학, 총 1,427명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2차 조사의 경우 188개 대학, 총 1,135명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자료는 통계패키지 IBM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전체적인 취업률이 계산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별 현황(소속계열, 학제구분,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을 나누어 취업률이 계산되었다. 둘째,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의 전반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자료인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 취업자 :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를 말함.
- 진학자 : 조사 기준일 국내 전문대학, 국내 대학, 국내 대학원, 국외 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 대학원 진학자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상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를 포함함.
- 취업 불가능자 : 조사 기준일 당시 사망자, 수형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말함.
- 제외 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자 군인 중 임관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를 말함.
- 취업률(%) = 취업자 / 전체 졸업자 - (진학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 인정자) * 100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를 포함함. 단, 취업률과 취업여부는 다른 용어이므로 해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III. 연구 결과

1.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취업 현황

1) 취업 현황 개요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2년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1,427명의 장애인들 가운데 취업자는 502명(전체 졸업자 가운데 41.42%) 취업하였다. 2013년에는 1,123명의 장애인 졸업생들 가운데 405명(전체 졸업자 가운데 41.80%)이 취업함으로써 2012년에 비해 취업률이 0.38% 상승하였다. 하지만 상승률이 0.5%도 되지 않아서 취업률에 있어 큰 변화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취업 현황 개요

구분	졸업자	취업률	졸업현황			
			취업자	진학자	취업불가능자	건강보험가입 제외 인정자
2012년	1,427명	41.42%	502명	106명	37명	72명
2013년	1,123명	41.80%	405명	99명	9명	46명

2) 학제별 취업 현황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학제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45.29%로 전체 취업률 41.42% 보다 3.87%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은 35.26%로 4년제 대학에 비해 10.0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장애인의 취업률은 45.48%로 전체 취업률 41.80%보다 3.68%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은 34.91%로 4년제 대학에 비해 10.5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대학원대학을 졸업한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 수와 취업자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3> 201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학제별 취업률

구 분	2012년			2013년			2012년 취업률	2013년 취업률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고등교육기관	259명	1,427명	502명	188명	1,123명	405명	41.42%	41.80%
4년제 대학	211명	843명	327명	113명	713명	287명	45.29%	45.48%
전문대학	139명	570명	171명	81명	409명	118명	35.26%	34.91%
대학원 대학	37명	14명	4명	1명	1명	0명	80.0%	.

3) 계열별 취업률 현황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5개 계열별 취업률에 있어 2012년에는 의학계열이 50.0%, 자연과학계열이 45.5%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은 공학계열이 55.0%, 의학계열은 졸업자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만 50.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와 전체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40%를 겨우 넘기 때문에 장애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보다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계열별 취업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인문사회계열	868명	322명	43.3%	708명	255명	41.3%
자연과학계열	194명	70명	45.5%	116명	39명	38.6%
공학계열	167명	65명	44.8%	132명	60명	55.0%
예체능계열	192명	44명	26.3%	160명	49명	35.5%
의학계열	6명	1명	50.0%	7명	2명	50.0%
계	1,427명	502명	41.42%	1,123명	405명	41.80%

4) 지역별 취업률 현황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지역별 취업률은 2012년의 경우 수도권은 44.34%, 비수도권은 40.27%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4.07%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2013년의 경우 수도권은 51.82%, 비수도권은 37.84%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13.98%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표 5>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2년 취업률	2013년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수도권	388명	145명	315명	142명	44.34%	51.82%
비수도권	1,039명	357명	808명	263명	40.27%	37.84%
계	1,427명	502명	1,123명	405명	41.42%	41.80%

5) 성별 취업 현황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 장애인의 성별 취업률은 2012년의 경우 남성 취업률이 42.43%, 여성 취업률이 39.64%로 남성 취업률이 2.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성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취업률이 41.85% 남성 취업률이 41.76%로 여성이 남성보다 0.09%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여성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2.21% 상승하였지만, 남성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67% 하락하였다.

<표 6>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의 성별 취업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남			여			남			여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생수	904명	328명	42.43%	523명	174명	39.64%	719명	256명	41.76%	404명	149명	41.85%

6)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률 현황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률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경도장애인들이 중도장애인보다 취업률을 보였다. 2012년의 경우 경도장애인이 48.76%, 중도장애인이 37.75%로 경도장애인이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11.01%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2013년에는 경도장애인이 50.00%, 중도장애인이 37.56%로 경도장애인이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12.44%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경도장애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012년, 2013년 모두 취업률이 높았으며, 중도장애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012년, 2013년 모두 여성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1) 고등교육기관 졸업 취업자의 재학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황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졸업 장애인 중 취업자들이 대학 재학 시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2012년, 2013년 모두 진로 관련 수업, 이력서 작성, 직업심리검사가, 취업캠프 순이었다. 재학 시 참여한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진로설계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이 언급되었으나 숫자가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3년 진로관련 수업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50%가 넘는 프로그램은 한 개도 없었으며, 장애대학생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표 9> 취업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캠프	예	110명	27.4%	134명	23.7%
	아니오	292명	72.6%	431명	76.3%
직업심리검사	예	128명	32.7%	203명	36.3%
	아니오	263명	67.3%	356명	63.7%
진로 관련 수업	예	184명	46.5%	320명	55.8%
	아니오	212명	53.5%	253명	44.2%
이력서 작성	예	178명	45.1%	326명	53.1%
	아니오	217명	54.9%	288명	46.9%
직장체험	예	67명	19.1%	157명	22.4%
	아니오	284명	80.9%	544명	77.6%

2)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의 경우 장애대학생 단독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학은 129개교였고, 총 실시 횟수는 510회였다.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합동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학이 장애대학생 단독으로 실시한 대학보다 7배 이상 많았으며, 총 실시 횟수도 6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학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합동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진로 관련 수업($n=127$), 진로설계상담($n=114$), 취업캠프($n=108$) 순서로 높았다. 장애학생 단독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는 진로설계상담($n=29$), 이력서 작성, 면접 클리닉($n=22$) 순이었다.

2013년의 경우 장애대학생 단독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학은 90개 교였으며, 총 실시 횟수는 257회이었다. 비장애대학생과 합동으로 취업지원 프로그

27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3호)

램을 실시한 대학은 729개교로 장애대학생 단독과 비교하여 8배 이상 많았으며, 총 실시 횟수는 26,931회로 10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학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합동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진로 관련 수업($n=108$), 이력서 작성, 면접클리닉($n=97$), 진로설계상담($n=93$) 순으로 높았다. 장애학생 단독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대학은 진로설계상담($n=18$), 직장체험 프로그램($n=15$) 순이었다.

<표 10> 2012년 및 2013년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복응답)

구분	장애대학생 단독 실시				장애+비장애 대학생 합동 실시			
	2012년 (1, 2학기)		2013년 (1학기)		2012년 (1, 2학기)		2013년 (1학기)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취업캠프	11개교	20회	8개교	7회	108개교	424회	72개교	169회
직업심리검사	13개교	35회	10개교	38회	98개교	7,656회	79개교	5,406회
진로관련 강의(수업)	12개교	23회	8개교	24회	127개교	1,324회	108개교	1,121회
이력서 작성, 면접클리닉	22개교	121회	11개교	46회	118개교	6,123회	97개교	9,391회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쉽, 견학 등)	13개교	24회	15개교	19회	91개교	1,996회	82개교	1,852회
진로설계 상담	29개교	191회	18개교	85회	114개교	12,170회	93개교	7,787회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7개교	23회	6개교	11회	91개교	1,708회	77개교	611회
취업박람회	7개교	13회	5개교	7회	71개교	198회	49개교	124회
창업 지원 프로그램	3개교	4회	3개교	2회	47개교	448회	33개교	106회
기타	12개교	56회	6개교	18회	52개교	747회	39개교	364회
계	129개교	510회	90개교	257회	917개교	32,794회	729개교	26,931회

IV. 결론 및 논의

1. 결 론

2012년 및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된 전국대학 장애대학생 취업 현황조사의 자료를 검토하여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황과 장애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황

첫째,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장애인들 가운데 취업률은 2012년 41.4%에서 2013년 41.80%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13년 비장애대학생들의 취업률이 59.3%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장애대학생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제별 취업률에 있어 장애대학생들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34.91% 취업하였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45.48% 취업을 하였다. 이에 비해 비장애대학생들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61.1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55.6%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대학생들의 5개 계열별 취업률에 있어 2012년과 2013년에 50% 이상 취업률을 보인 계열은 의학계열 한 곳 뿐이었다. 공학계열의 경우 2012년에는 55.0%였지만 2013년에는 44.8%로 낮아졌다. 하지만 의학계열의 경우 2012년 졸업생과 2013년 졸업생이 각각 6명, 7명에 불과하여 전체 장애졸업생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장애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취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하여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장애대학생들의 지역별 취업률과 관련하여 2012년에는 수도권 대학들을 졸업한 장애인들이 비수도권 대학들을 졸업한 장애인들보다 4% 정도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4% 가량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비장애대학생들의 2013년도 취업률에 있어 수도권 대학 졸업자보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0.7%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다섯째, 장애대학생들의 성별 취업률에 있어 2012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3% 가량 높게 나타났지만, 2013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0.1% 가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은 성별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률에 있어서는 2012년, 2013년 모두 경도장애 대학생들이 중도장애 대학생들보다 12~13% 가량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률에 있어서는 2012년, 2013년 모두 시각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의 경우 2012년보다 2013년 취업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및 실시현황

첫째, 장애대학생들이 2012년도에 참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진로 관련 수업, 이력서 작성이 50%이상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진로관련 수업, 이력서 작성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둘째, 취업지원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장애대학생들과 비장애대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프로그램들이 장애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보다 7~8배 많았으며, 실시 횟수에 있어서도 60~104배 이상 차이가 났다.

2. 논 의

장애대학생들의 취업현황 및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여 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장애대학생 취업 관련 조사는 지역이나 연구 대상의 범위에 있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와 같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과 함께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이후에도 불안정한 형태, 낮은 임금수준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하기 쉽다(김종진, 박자경 2007). 따라서 지금처럼 단순한 취업률분석이 아닌 향후 취업 현황 조사 시 취업 유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장애대학생이 취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장애대학생들은 취업률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큰 차이가 없지만 장애대학생들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의 취업률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대학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확대 및 대학 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조사 결과 장애대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기준 41.8%로 비장애대학생의 취업률 59.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기능과 책임이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장애대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준비과정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확대와 대학 내 장애학생 취업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의 책임이 증가되어야 하겠다.

셋째, 장애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관련 부처 간의 연계와 협업기능을 담은 국가차원의 정책연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취업 관련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개인이나 개별 기관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련 부처 간의 연계(예,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와 협업기능을 담은 국가차원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취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장애대학생 취업 정책 개발과 취업률 향상 방안을 도출해야 하겠다.

넷째, 2012년과 2013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도장애인의 취업률이 37.75%와 37.56%로 경도장애인의 취업률 48.76%와 50.00%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에서 조사한 전체 장애인의 취업실태에서도 경도장애인에 비해 중도장애인의 고용현실이 더욱 어렵다.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중도장애인은 16.3%, 경도장애인은 41.4%로 중도장애인의 취업자 비율보다 경증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이형열(2008) 연구에서는 취업률 뿐만 아니라 직업 유지기간에서도 경도 여성 청각장애학교 졸업 근로자에 비해 중도 여성 청각장애 졸업근로자가 직업 유지기간이 짧고, 이직경험 횟수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전체 장애인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다소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세심한 고용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용주는 지체장애와 같이 외형상 큰 표시가 없거나 장애정도가 가벼운 청각장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한다(남정휘, 조성옥, 2012). 장애유형은 장애의 편견을 유발하고 낙인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박태경, 2009).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갖고 있는 고용주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을 마련하며,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취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에는 지적장애, 정서장애, 자폐성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중도장애 대학생들의 취업은 전체 장애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장애대학생들이 참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빈도에 있어서도 진로관련 수업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과반수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대학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장애대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아 참여를 못한 것인지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대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원인파악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실제로 찾거나 취업관련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는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수행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김동일 등(2011)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장애대학생 개개인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취업관련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진로 상담 및 대학 취업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학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대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대학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점인정 교과 중심이나 취업 전 단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직장 체험 프로그램이나 취업캠프 등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거나 직업이나 직장체험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험중심의 프로그램에 장애대학생들의 참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장애대학생들과 비장애대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어 장애대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애대학생만을 위한 분리적인 프로그램이 더 실효성이 있다거나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곤란하지만 중도장애학생들의 경우 경도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과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장애대학생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조사도 필요하다. 장애대학생들과 비장애대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에 있어 장애대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 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 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 '17)**.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동일, 이기정, 김원호, 신재현 (2011). 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비장애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2(3), 915-929.
- 김중진, 박자경 (2007). 근로장애인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51-274.
- 김주영, 최복천, 박정란, 김기룡, 김진영 (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호연 (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과선택 및 진로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시각장애교육**

- 재활학회, 29(1), 1-23.
- 남정휘, 조성욱 (2012).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6(4), 37-156.
- 박은혜, 박재국, 신현기, 최성규, 최종근, 손지영, 최승숙, 채재은, 이효정, 박지연, 원성욱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박주영 (2003).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태경 (2009). 장애인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신혜숙, 김양분, 최정윤, 남수경 (201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대학교육의 진입, 과정, 성과 관련 정책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남, 문영미, 김병년, 김민정 (2011).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모형개발**. 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형열 (2007).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263-291.
- 이형열 (2008). 여성 청각장애 특수학교 졸업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취업경로, 직업훈련, 직업 만족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145-170.
- 임후남, 이선호, 오범호, 김경섭, 김성훈 (2008). **교육정보공시제 발전 체제 구출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동영, 정현우 (2012).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수정의 쟁점 해소방안 탐색.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5(1), 1-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Baum, S., & Ma, J. (2007). *Education pays 2004: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for individuals and society* (Rev. ed.). Washington, DC: College Board.
- Baum, S., & Payea, K. (2005). *Education pays 2004: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for individuals and society* (Rev. ed.). Washington, DC: College Board.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2). <http://www.dol.gov/odep/topics/DisabilityEmploymentStatistics.htm>.

Analysis of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Existing Support Programs for College Graduates with Disabilities

Kim, Rakyung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Miseon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Kim, Young A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Lee, Myung Joo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Kang, Jong-Gu

Daegu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universities in South Korea were surveyed in order to find out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the existing employment support for college graduates with disabilities in the years 2012 and 2013.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with disabilities from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as almost unchanged from 41.4% in 2012 to 41.8% in 2013, it remains at a level lower than the employment rate of non-disability graduates. Those from a 4 year university showed higher employment rates than those from technical colleges, and only those who studied in the medical fields had an employment rate higher than 50% for both years. In 2012 there were more urban hiring than rural, while in 2013 the reverse was true. Similarly, in 2012 there were more men hired than women, while in 2013 the reverse was true. Graduates with mild disabilities had higher employment rates than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Additionally, of the types of disabilities, graduates with visual impairment had the highest rate of employment. In 2012, graduate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the

most in classes related to their chosen careers, in resume workshops, and in work experience course, while, in 2013, they participated the most in classes related to their careers, in resume workshops, and in employment camps. Most colleges provided the career program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only a few colleges offered programs me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need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basis for regular investigation into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support for graduate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track the changes over tim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creased number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both individually and group focused, for graduate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College graduate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rates, Employment support programs